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본격'

교육부·도·도교육청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지역인재 양성 등 지원
교육발전특구 계획 공유

글로벌대학 간담회도 열려
교육·글로벌 혁신 등 통한
미래산업 증진 방안 논의

교육부와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은 21일 전북대에서 지자체,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서거석 교육감, 김중훈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내년 2월 9일까지 1차 공모를 거쳐 내년 3월초 1차 지정하고, 이어 내년 5월 1일부터 두달간 2차 공모를 통해 내년 7월 말 2차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2월에 있을 1차 공모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부지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시군, 교육청, 대학 등 유관기관의 회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올해 교육부 3대사업에 모두 선정된 만큼 대학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역성장동력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부와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이 21일 전북대학교에서 지자체,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서거석 교육감,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아 돌봄부터 평생교육까지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이 발굴되면 교육청과 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추진하고, 도시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내년은 향후 백년을 이끌어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원년으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전북도가 지역발전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혁신 테스트베드 역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부, 도, 전북대, 전주·남원시, 한국식품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글로벌대학 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대학 간담회도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전북대의 주요 과제인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 간 벽을 허물고, 교육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통해 전북 주력산업과 미래산업 증진을 이끌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지자체, 대학, 기업대상 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며, 지역발전 및 도내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한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글로벌대학의 성공은 도와 전북대뿐만 아니라 시군,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라며 "도는 이들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과 지역대학 전체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대학30'은 지역 산업·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11월 13일 전북대를 포함한 전국 10곳의 대학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했다.

/김재훈 기자

그림 같은 내장산, 눈부신 설경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이 흰옷으로 갈아입으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빛을 뿜낸 단풍나무들은 가지마다 하얗게 물들면서 눈부신 설경이 펼쳐진다. 정읍에는 지난 20일부터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구축된다

도·군산시·새만금청 등,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투자협약 체결
내년부터 2026년까지 2417억 투입... 국내 수요량 100일분 확보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핵심광물을 비축해 놓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가 새만금 국가산단내에 구축된다.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핵심광물 비축품목 및 비축량 확대를 통해 공급위기 발생 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31년까지 핵심광물 국내 수요량의 100일분을 확보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총사업비 2417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약 17만9,000㎡, 건축연면적 약 11만2,000㎡규모의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새로운 비축기지가 구축될 경우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위기 시 국내 산업의 단기 공급 차질을 해소해 든든한 자원안보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 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의 원료수급 애로 발생 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비축광물 활용이 가능해지며 새만금 국가산단 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정운천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군산=김판곤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26일 신문 발행합니다.

내 고향 향수 심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향수군을 사랑하는 마음, 기부금으로 전하세요!

향수사랑상품권

향수 향우

지역대지 세트

향수 사과

오미자

오미자주

등 20여개 품목

문의 | 향수군 행정지원과 ☎ 063-350-2009, 2140

고향사랑 기부제란?

재정이 현재 주소자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물 등 담배를 제공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액 연간 500만원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http://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포함)

기부금액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담배를 3만원

혜택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2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담배를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까지